

8/23/20

설교 제목: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 막벨라 굴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2 장 20-24 절, 23 장 1-20 절

- (창 22:20)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 (창 22:21)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 (창 22: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 (창 22: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 (창 22:24)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야가를 낳았더라
-
- (창 23:1)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 (창 23: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 (창 23:3)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 (창 23: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 (창 23:5)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 (창 23: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절관주** 창 13:2, 창 24:35
- (창 23: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 (창 23:8)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 (창 23:9)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헷 족속과의 거래

- (창 23:10)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 (창 23: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절관주** 삼하 24:22
- (창 23: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 (창 23: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 (창 23: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 (창 23: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 (창 23: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 (창 23: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러 모든 나무가 **절관주** 창 25:9, 창 49:30, 창 50:13
- (창 23:18)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 (창 23: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 (창 23:20)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절관주** 렘 32:10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제 1 대 족장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제 2 대 족장 이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자 모세는 23 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시작으로 24 장 이삭의 결혼 25 장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삭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립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사건 후 사라의 죽음을 다루기 앞서 아브라함 형제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창 22:20)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 (창 22:21)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 (창 22: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 (창 22: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 (창 22:24)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야가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에게는 나홀 하란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나홀만 남아 있었습니다.

- (창 11: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 (창 11: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 (창 11: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 아브라함은 이복 누이 사라와 나홀은 일찍 죽은 형제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근친 결혼을 하는 것이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모세가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기에 앞서 아브라함 형제들의 족보를 언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여덟 아들 중 브두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두엘은 아들 라반과 딸 리브가를 낳았는데 후에 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사라의 죽음에 앞서 아브라함 형제들의 족보를 언급함으로써 사라가 죽고 난 후 사라가 담당했던 아브라함 집안의 안주인 역할을 계승하게 될 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데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나이 127 세에 죽었습니다.

65 세에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지 62 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은지 37 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사는 동안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남편 아브라함의 동반자요 반려자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이 세상을 하직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창 23:1)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창 23: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친 사건이 있는 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돌아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헤브론 기랴아르바에서 죽은 것으로 보아 그동안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주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와 그랄에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고 헤브론에는 헷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 족속보다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으면 그곳에 묻히기 위해 이주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세월 함께 동고동락한 아내를 떠나보내며 슬퍼 애통해 했습니다.

그런 중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고자 헷 족속을 찾아갔습니다.

(창 23:3)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창 23: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창 23:5)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창 23: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은 함의 자손이며 가나안의 아들 헷의 후예들로 철을 잘 다루는 히타이트족입니다.

발달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근동 지역과 지중해 연안 지역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나안의 주요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성큼 자신들의 묘실 중 좋은 것을 택하여 쓰라고 합니다.

헛 족속이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극존칭을 써 호칭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아브라함을 경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헛 족속의 호의에 정중히 감사를 표한 후 소할의 아들 에브론 소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창 23: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헛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창 23:8)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창 23:9)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밭머리에 있다는 말은 밭 끝에 위치해 있다는 말입니다.

막벨라 굴은 두 개로 된 굴이라는 뜻이므로 아마도 굴 안에 또 하나의 굴이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거나 입구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헛 족속 가운데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모두 거저 내주겠으니 그곳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창 23:10) 에브론이 헛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헛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창 23: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은 아마도 헛 족속의 유력한 지도자였던듯 합니다.

당시는 성문에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거래 재판 모임 등등을 했습니다.

일례로 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 시에는 지도자가 성문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쌍방 간의 계약 조건을 구두로 말한 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관습을 따라 백성들 앞에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밭을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합니다.

(창 23: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창 23: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소할의 아들 에브론은 거듭 거저 쓸 것을 권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헛 족속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말한대로 땅 값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 밭을 샀습니다.

(창 23: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창 23: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헛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창 23: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러 모든 나무가

(창 23:18)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헛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리라

에브론은 간접적으로 땅 값을 제시했고 아브라함은 에누리없이 그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있는 에브론 소유였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막벨라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러 모든 나무들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에브론이 공짜로 매장지를 쓰도록 하였음에도 아브라함이 굳이 정당한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산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은 에브론이나 헛 족속이 호의적으로 나오지만 세월이 흘러 후대에 가면
그들의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소유권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살다 죽고 매장된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이 맥벨라 굴은 사라 뿐만 아니라 후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구약 3 대
족장 부부의 장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신이 값을 치르고 산 이곳 가나안 땅 헤브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창 23: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창 23:20)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사라가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사서 소유주가 된 이곳 가나안 땅 헤브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약속의 땅에 묻힌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정착지로 삼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 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살아 생전에 소유하였던 가나안 땅은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늘 나그네요 거류자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영원하고 아름다운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로 인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일생 동안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 11: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 11: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천국을 바랐기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거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등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비록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양로원에 15 여년을 들락거리며 수많은 죽음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각양각색의 삶을 산 사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으며 권력을 누렸던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천차만별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모습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숨이 끊어진 순간 하나같이 플라스틱 지퍼 백에 담겨지고 지퍼가 머리 끝까지 올려지는 순간 그것으로 이 세상과 연결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후 어떤 이는 천국으로 또 다른 이는 지옥으로, 두 갈래 길로 나뉘어 갔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그네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소망하던 아름다운 본향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고 공의가 넘쳐흐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라도 살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어진 시간 동안 묵묵히 사명 감당하며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희비희락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다 뜯 구름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